

# 광주시, 창업기업 기술실증 지원사업 확대한다

### 혁신기술 실증유형 3개→6개 지원규모 50개사로 대폭 늘려 18일까지 자율형 등 기업 모집 산업현장 탐방·판로 개척 지원

실증도시 광주시가 올해도 창업기업들의 혁신기술 제품 실증을 위해 도시 전역을 시험무대로 내어주는 실증 지원사업을 편다.

광주시는 '2025년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을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광주시 실증지원사업은 지원 규모를 50개사로 확대하고, 실증 유형도 기존 자율형, 시민체험형, 공공수요 솔루션형에 △공공인프라 솔루션형 △대·자·보 솔루션형 △장소 제공형을 새롭게 추가했다.

광주시의 실증 지원에 참여한 기업들은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판로 확보 등 실증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5개 참여기업들은 70억원의 매출 증가, 51억원의 투자 유치, 67명의 신규 채용 등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이 개발한 신기술과 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창업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공모는 자율형, 공공인프라 솔루션형, 장소제공형 참여 기업 29곳을 모집하고, 이후 시민체험형과 공공수요 솔루션형, 대·자·보 솔루션형 참여기업은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자율형은 상용화 직전의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며, 실증하고자 하는 혁신기술과 관련된 실증과제 및 장소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과제별 최대 1억

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공공인프라 솔루션형은 혁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빚고을창업스테이션(STA·G, 스테이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지식산업센터(I-PLEX) 등 공공기반시설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2500만원의 실증 비용이 지원된다.

장소제공형은 성능 검증이 시급이 필요하나 장소 협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 장소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실증을 성공리에 마친 기업에게 '실증확인서'를 발급한다. 또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판매처를 실증 현장에 초대

해 홍보하는 산업현장 탐방(테크니컬 투어)과 해외 실증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후속 지원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과 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실증센터(062-602-8609)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올해는 실증 유형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창업기업에게 고품질 확보와 기술 사업화 등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삼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 광주시 "어린이 환경보건이용권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 13세 미만 대상

광주시는 31일 환경부가 올해 전국 기초생활수급 13세 미만 아동 1만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사업'을 처음 도입했다며 지역 취약계층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이 사업은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건강 보호,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수준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

'환경보건이용권'은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과 실내환경 방문 컨설팅 및 필요 시장·벽지 교체를 지원하는 '실내환경 컨설팅 이용권'으로 나뉜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은 오는 1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21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어린이당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전국 8500명을 선정한다.

이용권은 어린이 1명당 10만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해당 포인트로 온라인몰에서 필요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진

료비·약제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립공원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자연환경 체험 서비스 '건강나누리 캠프 교육'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건이용권 포인트를 온라인몰 전용 포인트로 전환하면 다시 환경보건이용권 포인트로 재전환이 불가능하다. 진료비·약제비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고려해 온라인몰 전용 포인트로 전환이 필요하다.

'실내환경 컨설팅 이용권'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며 30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가구당 1회 신청할 수 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전국 1500명을 선정한다. 환경유해인자 진단·측정 및 컨설팅을 받고 필요한 경우 장판·벽지 교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201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어린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 이용권 누리집(www.ehtis.or.kr/ecovoucher)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상담센터(1544-0331)로 하면 된다.

**정삼아 기자**



**광주 제2순환도로 학운IC 진출로 하이패스 개통** 상습 정체구역인 광주 제2순환도로 두암·각화방면에서 학운 IC 진출로에 하이패스 시스템이 31일 개통됐다. 학운IC 진출로 1차로는 현금지불차량, 2차로는 하이패스 차로로 운영된다. **김양배 기자**

## "꽃피는 4월, 전남 다도해로 꽃구경 오세요"

### 전남도, 여수 하화도 등 추천 탐방로·먹거리 등 여행지 제격

전남도는 꽃피는 4월 다도해를 풍경으로 봄꽃을 만끽할 여행지로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여수 하화도는 '꽃섬'이라 불릴 만큼 봄이 되면 섬 전체가 꽃으로 가득한 곳으로 해식절벽의 경관과 진달래, 유채꽃, 야생화가 만발한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해안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탐방로(꽃섬길)를 걸으며 꽃과 바다, 한려해상의 비경을 만끽할 수 있다.

도다리회도 일품인 만큼, 해풍 맞고 자란 쪽으로 굵은 도다리숙국도 꼭 먹어봐야 할 봄철 별미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는 봄이면 구들장은 주변에 유채꽃

이 장관을 이뤄 그림 같은 풍경이 연출된다. 오는 5일부터 5월4일까지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도 열려 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최근 방영한 인기 드라마 '정년이' 촬영 장소로 알려져 여행객의 SNS 인증사진 명소가 됐다. 완도 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도미, 솜뱅이 등 생선요리를 맛보며 봄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진도 관매도는 다도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해식절벽과 해식동굴이 아름다운 섬으로, 넓은 유유 농경지를 활용한 유채꽃밭은 매년 상춘객들로 가득하다. 특히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보배섬 유채꽃 축제'가 열려 더욱 더 많은 이들이 진도를 찾을 예정이다.

유채꽃을 활용한 페이스 페인팅, 열쇠고리 만들기, 컵받침 만들기와 함께 진도 전통놀이, 서화 체험을 통해 진도의 정취를 느껴보고, 관매도의 특산물인 툇을 이

용한 툇칼국수, 툇빈대떡, 툇튀김 등을 맛볼 수 있다.

신안에서 가장 큰 섬인 신안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은 12km 광활한 백사장과 해송숲을 배경으로 삼백만 송이가 넘는 튼실 정원이 조성돼 매년 남녀노소 관광객의 사진명소로 인기가 많다.

특히 이곳에서는 11일부터 20일까지 '2025년 섬 튼실축제'가 개최돼 마치 유럽의 정원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 인근 식당에서는 봄철에 특히 맛있는 우렁회, 보리송어회, 간재미회 등도 맛볼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의 섬은 꽃피는 계절이 오면 아름다움이 배가 된다"며 "탁 트인 다도해 풍광과 활짝 핀 봄꽃을 즐기고 싶다면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에 꼭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 산불 대비 사찰 106곳 집중 예찰

전남도는 최근 전국 대형 산불로 사찰과 국가유산이 소실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산불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예찰을 했다.

집중 예찰은 순천 송광사·선암사, 장성 백양사,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등 주

요 사찰을 포함해 국가유산을 보유한 106개소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찰 내 소화전 등 소화설비 점검 △동산문화유산 보호 계획 점검 △산불 재난 발생 시 위험 요소 등이 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청 1층 '다목적 열린문화공간' 새단장

광주시는 청사 1층 좌측(동쪽)부분을 '다목적 열린문화공간'으로 새단장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시는 특·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당직제도 폐지 등으로 비워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비움과 개방의 철학'을 담아 시민들과 교류·소통할 수 있는 '열린청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확 트인 카페형 시민편의공간인 1-1단계 사업에 이어 기존 입주업체 공간을 재배치해 마련한 열린문화공간인 1-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열린문화공간은 시청사 1층 출입구 우측에 100평 200석(가변형) 규모로 조성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전·측면에 대형통창을 설치해 개방감을 최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청에서 바라본 무등산 능선에 영감을 받아 제작한 아트월은 무등산의 부드러운 곡선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해 간접조명과 함께 공간에 따뜻한 감성을 더했다.

중앙에는 '빛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은하계를 형상화한 대형 조명을 설치했다.

1층 안내데스크 앞 기둥 벽면에는 높이 11.5m, 직경 2m의 미디어아트 폭포를 설치해 5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5일 '도시관 문화 한마당'을 시작으로, 5월 '시민의 날' 행사 등 계절별·이슈별 테마를 정해 공공기관, 문화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삼아 기자**

## 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 지역 배출사업장 20여곳 대상 1~2일 점검반 3개조 편성

광주시는 1~2일 이틀간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여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환경전문가 등 시민으로 구성된 점검반 3

개조를 편성,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여곳을 선정해 환경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주기별 자가측정 적정 이행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광주시 누리집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은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마다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합동점검에서 사업장 16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정삼아 기자**